

# 주거학 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

이 소 영(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 1. 서론

Wagner(2008)는 "Trends Now Shaping Tomorrow's World<sup>1)</sup>"에 대한 서평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세계화 등을 다양한 요인을 통하여 전통적인 가치의 붕괴 및 번영과 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급격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환경의 파괴 등 경제, 문화, 환경, 에너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거학 교육을 하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까?

우선 주거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역할과 정체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대학교육은 학문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핵심적인 개념, 이론체계, 방법론, 패러다임 갈등의 모습 등을 전수하여 더욱 세련되고 정련된 학문의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육성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학문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론의 생성과 교육은 실천적인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유병희, 1999). 특히 주거학과 같은 응용학문에서 다루어지는 대학 교육은 이론적 지식 전달과 실무 능력 배양과의 연계성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실무능력 배양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장기적으로 학문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으며 시기에 따라 필요로 하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명운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필요에 의한 교육은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에서 적합한 교육이라 할 수 없겠다. 그러기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학 교육은 학문의 전문성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 발전에 함께 이바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2. 주거학과 인접 학문간의 유사성

주거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주거학은 물리적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을 계획·설계·디자인하고 생산·유통·판매하는 동시에 운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

1) 저자, Marvin Cetron & Owen Davies(Forecasting International Ltd)

수 있는 거주자의 다양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종합 응용실천학문이다”(이경희외, 2007).

주거학에서의 주 대상은 인간의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만들어낸 근접한 환경이라 하겠다. 주거학 분야와 건축학 분야는 인간에 의해 건축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성이 있다. 또한 많은 건축의 이론과 방법론이 주거학 분야의 교육에 적용되어 왔다.

학문과 교육 대상의 유사성을 논하는데 건축의 교육내용과 주거학 교육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건축교육은 기본적인 지식(사회적인면 / 환경적인면 / 미학적인면 / 기술적인면), 설계, 커뮤니케이션, 실무(프로젝트 프로세스, 경제, 경영관리/법규와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건축 설계, 건축의 문화적 맥락, 환경설계/시공/건축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실무와 경영을 다루고 있다. 대학건축학회에서 건축학 전공 및 분야에 대한 분류를 건축역사/의장, 건축계획, 주택 / 주택지 및 도시, 구조, 재료 / 시공 / 방화, 환경공학, 컴퓨터 응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다시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 5가지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건축 공학의 내용으로 구조, 환경조절, 시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구조는 건물을 안전하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요소들과 지지 시스템으로서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시스템(구조, 하중, 정정, 부정정), 역학(재료, 정), 모멘트(휨, 전단), 구조(목재, 콘크리트, 강구조), 구조이론 등이다. 환경조절은 건물의 기능을 미세 환경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여과장치를 시험하도록 하는 이론적 틀로 정의된다. 세부내용은 열, 빛(자연광, 인공광), 음향, 공기, 에너지(효율, 전달), 위생설비 등이다. 시공은 건물재료의 물리적 특성과 재료의 사용, 생성, 적용을 방법론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적 틀로 정의된다. 세부내용은 건물재료, 구조보존, 재료비용, 구법, 건설관리 등이다(건축학회 교육위원회, 2001)

주거학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이론, 주거계획 및 설계, 주거사, 실내디자인, 주거환경, 주택경제 및 건설경영, 주택관리, 주택정책 및 제도, 연구법 및 실습의 9개의 세부적인 전공영역으로 분류된다(<표 1>참조). 주거계획, 주거사, 주거환경, 주택 경제, 주택 정책 등의 내용은 주택으로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축교육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여 그 대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주거학 분야의 세부전공영역별 교과목

영역	교과목명
주거이론	인간과 주거, 주거학, 주거론, 주생활론, 주거환경심리 등 주거이론과목
주거계획/설계	주거계획, 주택설계, 구조, 설비, 시공 및 건축학 관련과목
주거사	실내디자인사, 한국주거(문화)사, 서양주거사
실내디자인	제도 및 표현기법, 기초조형실습, CAD, 실내디자인론, 디자인실습(스튜디오), 조명, 가구 디자인, 실내재료, 색채학, 실내코디네이션
주거환경	주거환경학 및 실습, 주택위생, 방재, 안전, 인간공학
주택경제/건설경영	주택건설과 경영, 주택산업의 이해, 부동산학, 주거재무관리, 주거자산관리
주택관리	주택관리, 주택상담(론), 리모델링
주택정책/제도	주택과 사회, 주택정책, 주택법규, 주거복지론
연구방법/실습	연구방법, 졸업논문, 현장실습

출처: 이경희외, 2007, p.110.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거학교육이 중점을 두는 대상은 물리적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으로 건축학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종종 주거학에서 다루어지는 환경은 좀 더 스케일이 작은 환경, 인간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주거학이 국내에서는 1963년에 주생활학과라는 학과 명칭을 채택하면서 체계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주거학 관련학과가 주택의 계획, 정책이나 공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의 전문적 요구가 사라지면서 주거학(housing)이란 전공대신 실내디자인 전공교육을 생활과 학내에서 행하여 오고 있다.

주거학에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이 건축학의 발전된 학문토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기둥으로 구성된 넓은 실내공간에 대한 내부 계획 및 마감,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사용계획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건축물의 수명과 별도의 내부 공간에 대한 공간 사용의 빈번한 변화는 실내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별도의 전문 분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요는 국내의 주거학관련 교과목에서도 상당한 부분 반영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특수한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주거학분야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학에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종종 대상의 규모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학의 많은 교육내용과 주거학의 교육내용은 매우 유사하여 보이며 주거학 교육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최근 대학의 대내외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거학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명칭에 있어서도 학문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혀 새롭게 변경하거나 혹은 다른 전공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학문대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주거학의 차별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거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과학 측면에서 생활과학이 지니는 학문에 대한 관점(perspective)이나 접근의 차별성에서 논할 필요가 있다.

### 3. 주거학 분야의 차별성

#### 1) 관점(perspective)의 차별성

주거학에서 건축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인가? 생활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차별성을 논하기에 앞서 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Peter Eisenman은 말하기를 “나의 집이 생활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나는 의미 없는 편리함(mindless convenience)을 다루지 않는다.....나의 작업은 예술에 관한 것이다(Frank, 2000, p.14). 그는 그의 건축물을 디자인하면서 가정학자들이 종종 하는 주방디자인의 배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사소하며 가치없음을 언급한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우리의 사후에도 자연의 일부로 남을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바쁜 건축가는 주택내에서 하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해본 적이 없으며 가정주부가 겪는 일상적인 주택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그가 두는 물리적 환경의 가치와 매일 매일 당면하는 필요에 따라 환경을 사용하는 주부가 중점을 두는

환경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특정가치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주택 내 가사일을 하지 않는 건축가에게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건물과 그 상징성과 의미를 논하는데 주방의 배치는 그가 건물을 대하는 철학과 관계없으며 당연히 하찮게 여겨지겠지만 매일매일 그 생활을 반복하여 불편함을 겪는 주부라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공간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궁극적인 편리함과 사용자의 요구가 최우선하는 가치일 것이다. Frank는 그녀의 책에서 재료, 상징적인 의미,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건축가와 사용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많은 건축가들은 사용자 관점을 간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가 주거학 전공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종종 내부의 목소리로 그치는 데 비해 생활과학자가 아닌 여성건축가에 의해 건축가들에게 제기되었다는 것이 흥미로우며 주거학 전공자들이 기여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생활과학대학이 가진 환경에 대한 관점을 Bubolz와 Sontag의 이론(1993)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과학이론(human ecology theory)은 인간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생물학적 유기체(biological organism)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s)로서 강조하고 있다(Bubolz, Sontag, 1993).

인접한 물리적 환경(immediate physical environment)이 내포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 내 생활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인공물(artifact), 실행, 천연재료, 주변, 과정을 말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과 환경간에 생태적인 관계(ecological relationship)를 강조하고 있다(East, 1980; ).

생활과학은 인간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생활과학의 관점은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분야와 예술, 인문학이 융합되는 특징에 그 독특함을 가진다(Bubolz, Sontag, 1993, p.422).

즉 생활과학이 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은 다분히 상호작용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주거학은 건축학이나 디자인학과 달리 이러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간의 상호작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차별성을 지닌다 하겠다.

## 2) 강조의 차별성

주거(住居)는 거주환경과 삶을 지칭하는 주생활의 동의어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주거학의 교육목표가 주거환경이 속한 사회·문화·경제적 요소들과 물리적 측면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을 계획하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있어 왔다(윤정숙 외 3인, 1991).

주거학에서의 강조는 생활과 이러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의 특성에 기반을 두며 생활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학에서의 사용자 요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를 환경을 계획·설계·디자인하고 생산·유통·판매하는 동시에 운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반영하는 부분을 강조해 왔으며 환경내에서 이러한 사용자나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 왔다.

건축학 교육이 건축설계, 건축의 문화적 맥락, 환경설계/시공/건축기술, 구조, 재료/시공/방화, 환경공학, 컴퓨터 응용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주거학 교육은 주거학(주생활론), 환경심리, 주거문화,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방법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환경은 주택재고량의 증가와 공동주택의 증가, 실내 건축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 계획 및 관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의 관리 및 경영은 지속적인 사용이란 관점에서 물리적 대상만이 아닌 생활하는 거주민에 대한 고려와 그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분야로 주거학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로 하는 분야일 수 있다. 따라서 주거학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거주자의 행태, 요구, 선호, 의식 등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이 강조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주거학은 응용학문으로서 사회학, 심리학, 환경학, 건축학, 경영학 등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학제간 연구와 융합적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다학제간 연구와 융합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4. 주거학의 전문성

변화하는 환경에서 주거학이 지닌 인접학문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학문분야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가 양성 교육과 경쟁력있는 학문분야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주거학 교육의 교과과정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생활과학에 기반을 둔 주거학의 차별성에 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 1) 국내 대학 주거학 관련 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sup>2)</sup>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학 교과과정을 문제점으로 첫째, 영역별 관련 교과목의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다. 교과목 구성을 보게 되면 교과목의 대부분이 실내디자인 영역과 주거이론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주거사, 주거환경, 주택경제 및 건설경영, 주택관리와 주택정책 및 제도 관련 교과목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에 관계없이 주거학과 교과목이 유사하며 특히 주거의장과 계획에 관련된 세부전공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어 다양성이 결여되었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이나 관리, 유통, 부동산, 환경 분야보다는 일반적인 주거이론 중심의 사회문화 관련 교과목 편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학 전공자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학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과 건강가정사, 가정복지사 등 생활과학계열 전공자들이 공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크게 상담영역, 주거자산관리영역, 설계 및 인테리어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자격증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 중 상담영역에는 민간자격증인 주택상담사(1급, 2급), 주거복지사가 있으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보, 소방기사자격증이 있다. 주거자산관리영역의 국가공인자격증에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핀드매니저가 있으며 설계 및 인테리어 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으로는 실내디자이너,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거

2) 이 장의 내용은 이경희외(2007)의 연구에서 기술한 내용을 전문 발췌하여 실었음.

학 전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 실내건축기사 혹은 건축기사와 같은 국가관련 자격증들은 건축학 관련 학과의 졸업생들도 대부분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해서도 주거학의 학문적 독창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대학마다 특성화된 내용이 없이 다양한 세부영역별로 거의 공통된 교과목들로 구성되다보니 각 영역별로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교과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회나 산업현장에서는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교과과정의 구성이 교수의 전공영역이나 학문적 배경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학문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교과과정의 배분 현상은 주거학이 단독의 전공영역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보다 두 개 이상의 전공영역이 하나의 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학부축소 경향이나 대내외적인 구조 개혁의 방향을 고려할 때 타 전공 영역과 통합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학 관련학과가 분리 독립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교과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통합교과과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학문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주거학 발전을 위한 논의

주거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인간과 그들의 삶이 영위되는 생활환경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가족구조의 변화, 생활양식 및 가치의 변화, 테크놀러지의 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가정과 주택의 경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또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유형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사용자 소비자 중심으로 거주환경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학의 대상은 인간의 거주환경의 주를 이루는 근접한 환경을 다루는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과정에서도 주택을 넘어서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환경을 다루는 범위로 넓혀나가야 한다. 실체적 비실체적 환경의 경계마저 모호해지는 시대에서 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주거학의 세부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너무 많은 다양성은 정해진 교과과정 안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가진 자원 및 학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성을 가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실내디자인 전공 인증과목과 같이 전공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주거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교과과정을 구성하되 각 대학의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요구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산업부분의 요구를 참조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물리적 환경의 경영과 관리 부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직의 경영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시설경영(facilities management), 사용자 소비자 관점에서 생활적 요구를 규정하고 이를 수용해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수상복합 건물 관리, 소비자의 주거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거자산관리(housing asset management), 사용자와 계약, 임대 및 관리 의무

사항, 주택 및 해당 커뮤니티 관리 등 주택임대관리(residential property management) 분야는 앞으로 중요성이 증대될 분야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계획분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환경 관련 부분에서 전문적인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주거학 관련 학자들의 교육과 연구에서 차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분야도 거주자 행태 및 거주자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주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와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학제간 융합적 교류를 통하여, 보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과 나아가 근접환경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관리 경영하는 분야에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학문의 발전을 가져올 책임감을 기대한다.

주거학교육의 담당하는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한가? 항상 그러하듯이 변화하는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분야로 지속되기 위한 책임감이 따를 것이다. 사용자 중심, 소비자 중심, 문화를 중시하고 번영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에서 생활, 문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학이 가지는 독특한 관점은 이 시대에서 주거학을 교육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건축학회 교육위원회(2001). 건축학 교과과정 모형연구-최종보고회 발표자료.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원, [http://www.kaab.or.kr/sub\\_main.asp?kmenu=menu](http://www.kaab.or.kr/sub_main.asp?kmenu=menu), 2008.4. 25일 발취
- 유병희(1999).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실태 조사연구. *교육과정연구*, 17(1), 193-218.
- 윤정숙, 김선중, 조재순, 박경옥(1991). 주거학 교과과정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1). 111-124.
- 이경희, 조유현, 김영주, 이소영(2007) 주거학 교육의 특성화 증대방안으로서 시설경영 교과과정 도입의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3), pp.107-121.
- Bubolz, M. M., and Sontag, M. S.(1993). "Human Ecology Theory." In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ed. P.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and S. K. Steinmetz. New York: Plenum Press.
- Franck, K. & Lepori, B.(2000). *Architecture Inside Out*, Academy Press.
- Wagner, C.(2008). What's Going On, What Does It Mean? Find More Like This, *Futurist*, Mar/Apr, 42(2), p3.